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참여분야와 연령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이 형 규

자원봉사 참여경험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참여분야와 연령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승 중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이 형 규

이형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107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영미권·유럽권 국가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급격한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와 그로 인한 정부능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러한 복지 지출 증가는 경제적 어려움 및 재정 위기와 맞물려 사회복지비 지출의 축소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졌다. 그에 따라 저렴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 부상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공공부문에서 자원봉사의 정책도구로서의 활용은 시민 참여를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민의식의 성숙에 따른 비판적 자질 향상, 적극적 참여욕구의 증대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재정립 필요가 있었고 자원봉사는 민-관 파트너십의 대표적 형태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2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원봉사 참여 동기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분석, 다른 하나는 자원봉사 결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다.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표적으로 나이·성별·혼인·학력·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다양한 요인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자원봉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참여자들에게 주는 혜택과 관련된 연구도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과 삶의 만족도 향상, 심리적 행복의 증진 등이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하는 혜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활용하면서 연령대별로 자원봉사가 행복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 참여 분야(환경보전 분야, 자녀교육 분야, 취약계층 분야, 문화예술 분야)별, 자원봉사 참여 의향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종속변수인 행복의 경우에도 행복의 하위 구성요소인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해본다. 그리고 다양한 함의를 얻기 위하여 이러한 분석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민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의 사각지대인 자원봉사 참여 분야별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 참여자 세대별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환경보전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중·장년층의 행복수준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청년층의 행복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녀교육분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할수록 청년층의 행복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의 경우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낮아지는 관계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은 노년층의 행복 수준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은 참여 분야별로 개인의 행복수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바 없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행복과의 상관관계 관련 실증결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결과와 달리 자원봉사 참여분야를 구분하여 분석해 볼 때 자원봉사 참여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자원봉사 참여 분야에 따라 행복에의 영향이 상이한 점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하위 행복분야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연령대별로 봉사활동 분야에 따라 행복에의 영향 다르므로 연령대별로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제안하는 것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본질적 특징인 ‘자유 의지’(free will)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이 아닌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실천할 때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과 행복 수준이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어 : 행복, 자원봉사 참여경험, 자원봉사 참여의향
학 번 : 2015-24498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이론적 배경	5
1. 자원봉사의 개념	5
2. 자원봉사 참여 동기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7
3. 행복에 관한 이론적 논의	11
4. 자원봉사와 행복	13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5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원봉사 참여와의 관계	15
2. 자원봉사 결과에 대한 연구	18
제 3 절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제 3 장 연구모형 및 방법	23
제 1 절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23
1. 연구가설	23
2. 연구의 분석틀	23
3. 연구모형	24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24
제 2 절 분석자료와 변수의 정의	25
1. 조사대상과 분석자료	25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6
제 4 장 분석결과 및 해석	30
제 1 절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30

1.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30
2. 주요 변수의 응답자 유형별 측정결과	33
제 2 절 자원봉사 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37
1. 상관관계 분석결과	37
2. 회귀분석 분석결과	38
제 5 장 연구의 함의 및 결론	55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55
제 2 절 연구의 한계	57
참고문헌	58
Abstract	62

표 목 차

[표 1]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0
[표 2]	설문에 사용된 문항	28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0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31
[표 5]	독립·종속변수의 하위분야별 기술통계량	32
[표 6]	응답자의 유형별 종합행복지수	33
[표 7]	응답자의 유형별 자원봉사 참여의향	35
[표 8]	상관관계분석 결과	37
[표 9]	다중회귀분석 결과A(종합행복지수 등)	39
[표 10]	다중회귀분석 결과B(대인관계 등)	40
[표 11]	다중회귀분석 결과(청소년층)	41
[표 12]	다중회귀분석 결과(청년층)	46
[표 13]	다중회귀분석 결과(중·장년층)	48
[표 14]	다중회귀분석 결과(노년층)	50
[표 15]	분석결과 요약	52
[표 16]	자원봉사참여가 부분별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A	53
[표 17]	자원봉사참여가 부분별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B	54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3
--------	---------	----

제 1 장 서 론

영미권·유럽권 국가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급격한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와 그로 인한 정부능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러한 복지 지출 증가는 경제적 어려움 및 재정 위기와 맞물려 사회복지비 지출의 축소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졌다. 그에 따라 저렴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 부상하였다(신윤창, 2008).

우리나라도 자원봉사를 하나의 정책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에서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의 역할을 강조(행정자치부, 2016)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직장인 재능나눔을 통해 사회 약자 계층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이·미용 서비스 제공, 사랑의 집수리, 정보화교육, 힐링콘서트 개최 등 사회 약자 계층에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정책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행정자치부, 2016).

Savas는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의 유형 중 하나로 자원봉사를 제시하였다.¹⁾ Savas는 자원봉사는 다른 민간화 방식과 차별화 되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원봉사는 정부로부터 유인 제공 없이 일반시민의 자발성에 기초

1) 해당 문단은 김병섭 외, 「정책수단론」, 서울 : 법문사, 2013. pp. 463-465.의 내용요약 및 인용

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서, 정부의 유인 제공에 따라 민간 개인과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다른 민간화 방식과 차별된다(김병섭 외, 2013). 또한 자원봉사는 공급과 생산(생산, 배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인 반면, 다른 민간화 방식은 서비스의 공급(계획/재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일부 학자는 자원봉사를 다른 민간화방식과 구별하여 공동 생산으로 부르기도 한다(Sharp, 1990)²⁾.

자원봉사활동은 정부경영개선이나 정부혁신을 위한 전략으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높은 효과성을 유도할 수 있다(김인, 1997). 또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소비자인 주민과 서비스 공급자의 결합된 노력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수준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양과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김인, 1999).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은 정부의 경제적 한계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공공부문에서 자원봉사의 정책도구로서의 활용은 시민 참여를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임승빈, 1999). 시민의식의 성숙에 따른 비판적 자질 향상, 적극적 참여욕구의 증대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재정립 필요가 있었고 자원봉사는 민-관 파트너십의 대표적 형태로서의 의미가 있다(임승빈, 1999).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와 지방자치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방자치시대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 복지, 문화, 환경, 건강, 여가 등에 대한 행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원봉사를 통한 서비스 전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임승빈, 1999). 자원봉사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간 유사성은 <표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2) 김병섭 외, 「정책수단론」, 서울 : 법문사, 2013. p.436에서 재인용

<표 1>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사회복지 및 국민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주민복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자연보호활동,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 지도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교통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활동	재해대책의 수립·집행, 화재예방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김성준(2001. p166)을 토대로 재구성

<표 1>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범위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유사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사회복지, 환경보호, 교육, 교통질서, 재해대책, 문화진흥 등 자원봉사와 지방자치단체 사무 간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특징적 변화로 지방화(localization)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종수, 2011)을 고려해 볼 때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맥락 하에 자원봉사활동의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2가지 부류로 구분 할 수 있다(남은영 외, 2012). 하나는 자원봉사 참여 동기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분석, 다른 하나는 자원봉사 결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나이·성별·혼인·학력·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다양한 요인들이 논의되었다(강철희, 2003; 김성경, 2007; 김성경, 2009; 김태홍 2007; 이진이 외, 2015; 이용관 2015). 또한 자원봉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참여자들에게 주는 혜택과 관련된 연구도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과 삶의 만족도 향상(Van Willigen, 2000), 심리적 행복의 증진(Herzog et al., 1998; Thoits and Hewitt, 2001) 등이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하는 혜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남은영, 2012).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복 증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자원봉사 결과 연구 중 심리적 행복 증진과 관련한 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행복수준이 증가하는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활용하면서 연령대별로 자원봉사가 행복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 분야(환경보전 분야, 자녀교육 분야, 취약계층 분야, 문화예술 분야)별, 자원봉사 참여 의향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인 행복의 경우에도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해본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민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행복감이 자원봉사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자원봉사의 개념과 특징

1) 자원봉사의 개념

자원봉사의 개념은 자원봉사의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volunteering)를 명확히 정의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김옥진, 2015). 우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 14473호)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제기구에서는 유엔봉사단의 경우 자원봉사를 ‘자유의지, 무보수의 동기, 타인에 대한 혜택’으로 개념화 한다(UNV, 2011). 유럽연합(EU)에서는 ‘개인 의지, 금전적 이득 없이 추구되는 모든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European Union, 2009)

Dunn은 자원봉사를 ‘개인이나 집단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예방·통제·개선하기 위해 공적·사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서비스 활동에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성준, 2001). 또한 Brudney는 사회적 관습·생물학적 필요 및 정부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 경제적 이득과 무관하게 참여자 또는 사회 전체에 이롭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개인·집단에 의한 무보수의 활동으로 정의한다(김성준, 2001). 국내 연구에서는 현외성(2017)이 물질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의 다양한 분야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 자원봉사의 특징³⁾

자원봉사를 개념화 하고자 하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으나 여전히 자원봉사의 개념에 대하여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자원봉사활동의 형태가 주체, 객체, 활동 내용, 참여 동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즈리(illsley, 1990)의 자원봉사 활동의 공통적 특징 8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특징은 이타주의(altruism)이다. 이타주의란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선을 위한 헌신을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대상에 대한 대가없는 행동을 통해 이타주의가 발현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헌신(commitment)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을 위하여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자원봉사 대상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할 수 있다.

세 번째 자유의지(free will)이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이 아닌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실천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네 번째 학습(learning)이다. 자원봉사를 통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외에도 봉사활동 준비 및 실천 단계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증시하는 것이다. 자원봉사를 통한 체험,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 내면화 등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다섯 번째 무보수성(absence of financial remuneration)이다. 자원봉사는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봉사활동 자체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원봉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또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현외성, 2017), 이 또한 자원봉사의 참여독려를 위한 것이지 봉사 자체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함은 변하지

3) 현외성, 「현대 자원봉사론」, 서울 : 창지사, 2017. p.40-42에서 재인용

않는다.

여섯 번째 조직(organization)에서의 활동이다. 자원봉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관리 조직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는 이러한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할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심리적 보상(psychological benefit)이다. 자원봉사 참여 후 얻을 수 있는 만족감, 개인적 성장 등을 의미한다. 이는 자원봉사 참여의 향을 고취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다.

여덟 번째 희생(sacrifice)이다. 자신이 보유한 것을 상대방에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원봉사는 필연적으로 시간, 경비 등을 투입하게 되며 자원봉사 대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시간, 노력을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원봉사 참여 동기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자원봉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반대 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자원봉사활동진흥법」에서의 자원봉사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다.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의 수혜자에 대한 도움, 긍정적 기능 이외에도 자원봉사를 통해 도움을 주는 주체로서 인간에게 목적의식을 부여하며 삶을 보다 의미있게 하는 기제를 제공할 수 있다(Musick & Wilson, 2003). 자원봉사가 자신을 유용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이란희, 2015).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이 수혜자의 만족도 이외에도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장점도 있음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활동이 가져다 주는 편익은 자원봉사자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점이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란희, 2015).

이처럼 자원봉사 활동 자체는 대가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의 동기는 개인별 특성에 의한 자기이익 또는 자아실현의 욕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개념적 틀에 근거하여 자원봉사 동기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김성준, 2003).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봉사 참여 동기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김옥진, 2015). 이하에서는 ‘수단 지향적 동기’와 ‘목적 지향적 동기’로의 구분과 D. Batson이 구분한 이기적 동기, 이타적 동기, 집합주의적 동기, 원칙주의적 동기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단지향적 동기이론과 목적지향적 동기이론

(1) 수단지향적 동기이론

수단지향적 동기는 봉사활동 자체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김성준, 2003). 자원봉사자는 본인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동기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Meneghetti, 1995).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나 대학생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 ‘새로운 경험 획득’, ‘적성발견과 자기 개발을 위하여’,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득을 위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홍연숙, 2000). 이와 같은 개인의 동기부여는 자원봉사 참여라는 행위와 그에 따른 보상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관한 개인의 VIE(유의성-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expectancy)에 의해 결정된다고 수단지향적 동기이론은 보고 있다(김성준, 2003).

수단지향적 동기이론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UNHCR) 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근무하고 싶은 학생은, 본인의 적성과 맞는지 또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expectancy)을 갖고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다. 자원봉사활동 후 봉사기관에서의 경험을 수단(instrumentality)으로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이 학생에게 주는 보상의 중요성을 유의성(valence)라고 수단지향적 동기이론에서는 설명한다. 결국 수단지향적 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지 결정하는 기준은 ‘자원봉사활동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다 (Meneghetti, 1995).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을수록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김성준, 2003).

(2) 목적지향적 동기이론

목적지향적 동기는 봉사활동을 통해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의미를 실현하고 추구해 주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다(김성준, 2003). 자원봉사자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목적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결정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Okun, 2003).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를 ①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②안전에 대한 욕구(safety needs) ③사회적 욕구(social needs) ④존경의 욕구(estem needs) ⑤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의 5단계로 분류하였다(오석홍, 2016). 이러한 5단계 욕구 중 자원봉사자의 목적지향적 동기이론을 설명해주는 것은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이다(김성준, 2003).

사회적 욕구란 집단에 귀속하거나 사람과 사귀고자 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이다. 사회적 욕구 수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사회 구성원과 함께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존경의 욕구란 사람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기 바라는 욕구이다(오석홍, 2016). 존경의 욕구 수준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김성준, 2003).

자아실현의 욕구란 사람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실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오석홍, 2016). 자아실현의 욕구 수준에서는 자기완성에 대한 갈망으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재능이나 기술이 있을 때 이를 활용하고자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Vineyard, 1984).

2) D.Batson의 자원봉사 동기이론⁴⁾

D.Batson, Ahmad and Tsang(2002)의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 동기를 크게 이기적 동기, 이타적 동기, 집합주의적 동기, 원칙주의적 동기로 나누고 있다.

이기적 동기는 사회적 인정, 칭찬, 죄의식 회피 등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자원봉사의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복지증진을 부차적으로 야기한다는 효과가 있으나, 통상 이기적 동기에 의해 촉발된 자원봉사활동은 지속성이 취약하다고 한다.

이타적 동기는 연민, 감정이입 등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자원봉사의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 되는 동기로 평가할 수 있다. 단, 감정이입·연민으로 설명하기 모호한 대상에 대한 봉사활동의 동기에 대해서는 설명력 있는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집합주의적 동기는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자원봉사의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Finkelstein(2010)에 따르면 해당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클수록 집합주의적 동기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정 집단 구성원들과의 동일시하는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4) 해당 문단은 김옥진, 「자원봉사」, 서울 : 청목출판사, 2015. p.80-81 내용을 인용

원칙주의적 동기는 숭고한 도덕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기는 사회정의라는 대의명분을 구현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잘 발견될 수 있다. 사회적 이슈에 무임승차(free riding)하지 않겠다는 의식,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무엇인가 해야한다는 사명감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3. 행복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행복의 개념

행복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셀리그만(Martin E. P. Seligman)이 주도한 긍정심리학의 등장 이후 행복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남은영 외, 2012). 이와 같은 연구 경향에 따라 행복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Diener, Sandvik, and Pavot, 2009; 최말옥·문유석, 2011). 관련 연구에서 삶의 질,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와 행복을 분리해서 접근하기도 하고, 같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김병섭, 2015).

Veenhoven은 행복을 전반적 개념과 세부적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반적 개념에는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만족감(contentment), 쾌락수준(hedonic level)이, 세부적 개념에는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자기존중감(self esteem), 신념의 통제(control belief) 등의 요인이 포함된다고 하였다(이지은 외, 2014). 또한 Layard는 행복을 인간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달리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자명한 선이라고 정의하였다(이지은 외, 2014).

2) 행복의 영향요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 행복의 요인은 복잡적이며 연구가 이루어진 시·공간에 따라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건강 등 일부 요소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Diener & Seligman(2004)은 정치경제체제, 소득, 노동,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의 6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이지은 외, 2014). Layard(2005)는 가족관계, 재정상황, 일,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 건강, 개인적 자유, 개인적 가치를 행복의 7대 요인으로 제시하였다(이지은 외, 2014). 또한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득, 세대, 가족, 직업, 교육 등이 중요 요인으로 밝혀졌다(정지범, 2011). 이처럼 행복의 영향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변미리·최정원(2016)의 연구처럼 크게 경제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행태적 요인으로 구분가능하다.

(1) 경제적 요인

Dolen et 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웰빙(well-being)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변미리 외, 2016). 일부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소득의 긍정적 기여도 실제로는 소득과 웰빙 사이에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tion)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변미리 외, 2016).

(2) 인구·사회적 요인

행복의 조건으로 나이, 성별 등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세대, 가족, 직업, 교육 등 사회적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 인구통계적 요인에서 Easterlin(2006)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나이와 역U자 형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변미리 외, 2016). Ebrahim et al.(2013)은 흑인 집단이 여타 인종 집단에 비해 낮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변미리 외, 2016).

사회적 요인에서 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순기능은 미국, 영국 등 세계 각 국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 더 큰 행복

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했다(변미리 외, 2016). 또한 실업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종교 활동이 사람들의 행복을 제고하는데 일조한다는 결과도 행복에의 영향요인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다(변미리 외, 2016)

(3) 행태적 요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아, 삶에 대한 태도 등도 지적 할 수 있다. Helliwell & Putnam (2004)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자본의 형성이 행복을 증진 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이웃 간 연대의 정도가 높을수록, 신뢰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행복지수가 상승한다고 주장하였다. Lelkes(2006)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가 개인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변미리 외, 2016).

4. 자원봉사와 행복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행태적 요인이 있다. 특히 자원봉사와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 보다 인구·사회적 요인 또는 행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이스터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와 같이 삶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개인의 행복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1970년대 이후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의 주관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민진 외, 2017).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접근은 건강 및 물질적 안녕, 사회적 관계, 사회적 및 지역사회 활동, 개인적 발전 등과 같은 삶의 주요 영역들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중점을 둔다(박민진 외, 2017).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적 활동이 행복함을 느끼는데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한준 외, 2014).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

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거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본인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부정적 측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한준 외, 2014).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Fujirawa & Kawachi(2008), Borgonovi(2008) 등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참여가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히기도 하였다(김육진, 2015).

하지만 사회적 활동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예지은 외(2013)의 연구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며 기부 경험, 동호회 가입 여부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박민진 외, 2017).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는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다.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때 느끼는 행복감, 사회적 연결망 형성 및 사회적 평판의 상승을 통한 만족감 등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자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경로이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있음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시 통제변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가 자원봉사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연령대별, 자원봉사 참여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원봉사 참여와의 관계

1) 연령과 자원봉사 참여와의 관계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때 연령과 자원봉사 사이에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선 강철희(2003), 조선주(2011)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기간 및 빈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Hodgkinson(1988)의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가 활발하다는 연구가 있다. 반면 Herzog et al. (198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다는 결과가 있다. 또한 김성경(2009)의 연구에서는 나이와 자원봉사 참여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2016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자원봉사 참여율은 20대 24.2%, 30대 23.3%, 40대 25.0%, 50대 23.4%, 60대 이상 17.2%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16). 2011년에 비해 30·40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증가하였고, 20·50·60대의 경우 감소하였다.

2) 성별과 자원봉사 참여와의 관계

선행연구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다수이다(이성록, 2002., 김성경, 2009., 이용관, 2015., 이란희, 2015). 특히 이란희(2015)의 연구결과 성별은 특정 변인을 제외하거나 포함하더라도 자원봉사 참여에 가장 높은 결정력을 보이는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김기원(1997)의 경기도 하남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관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⁵⁾ 첫 번째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보살핌의 마음이 요구되는 활동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적극적이라는 견해이다(Messner and Bozada-Dea, 2009). 자원봉사 참여의향에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회화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여성은 남성보다 자원봉사에 적합한 사회구조적 위치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Marshall and Taniguchi, 2011). 예를 들어 여성의 미취업률이 높은 사회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여성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다른 관점과 달리 개인의 특징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파악하는 거시적 관점이라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이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적극적이라는 견해이다(Eagly, 2009). 여성이 남성보다 이타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학계에서 비주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의 「2016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남성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5%, 여성의 경우 24.5%로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는 남성의 자원봉사 참여율 21.2%, 여성 21.3%로 비슷하였으나 2014년에 격차가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행정자치부, 2016).

3) 혼인여부와 자원봉사 참여와의 관계

혼인여부가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김태홍(2007)은 기혼자들이 미혼자보다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란희(2015)의 연구에서는 연령대가 30대 이하인 경우 혼인상태

5) 해당 문단은 김옥진, 「자원봉사」, 서울 : 청목출판사, 2015. p.140-141을 요약

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원봉사 활동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4) 학력과 자원봉사 참여와의 관계

교육수준과 자원봉사와의 관계는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김기원, 1997., 김태홍 외, 2007.; 이진이 외, 2015.; Choi, DiNitto, 2012). 하지만 교육수준과 자원봉사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이용관, 2015).

교육수준과 자원봉사와의 정적 관계를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Musick and Wilson, 2008).⁶⁾ 첫 번째 고학력자의 내적 특질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으로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하여 공감 능력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높은 자원봉사 참여의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고학력자의 사회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하여 다채로운 관심사, 욕구를 가지므로 사회참여수준이 높고, 이것이 자원봉사 참여수준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2016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력별 자원봉사 참여율은 대학 재학 이상 26.7%, 고졸 21.8%, 중졸 이하 10.7%로 고학력층의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16).

5) 소득과 자원봉사 참여와의 관계

소득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박태규 외, 2004., 이진이 외, 2015., Freeman, 1997). 대가가 없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데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생계 유지에 문제가 없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태홍(2007)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

6) 해당 문단은 김옥진, 「자원봉사」, 서울 : 청목출판사, 2015. p.91-93에서 재인용

여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는 자원봉사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 경제행위자로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한다(Romero, 1986)⁷⁾. 또한 소득과 자원봉사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조선주, 2006., 이용관, 2015)와 소득과 자원봉사 사이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난다는 연구(김봉근 외, 2013) 등 소득과 자원봉사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2016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은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기준 월 평균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은 199만원 이하 14.3%, 200~299만원 14.3%, 300~399만원 24.4%, 400~499만원 25.7%, 500만원 이상 29.6% 이다(행정자치부, 2016).

2. 자원봉사 결과에 대한 연구

자원봉사활동의 결과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수혜자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자원봉사 수혜자의 혜택 보다 자원봉사자가 대가없이 수행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얻는 결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 대표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정신적 성숙, 여가선용, 자아실현,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남은영, 2012). 이하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 수혜자 및 자원봉사자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1) 자원봉사 수혜자에 나타나는 결과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 수혜자가 갖고 있는 욕구 해소가 가능하다. 기존의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현외성, 2017). 과거에 지역공동체 또는 가족이 수행하였던 노

7) 김육진, 「자원봉사」, 서울 : 청목출판사, 2015. p.100-102에서 재인용

인 부양 기능이 핵가족화로 인하여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원조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자원봉사 수혜자가 느낄 수 있는 인간 소외현상의 예방이 가능하다(현외성, 2017). 사회공동체가 약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나 사회복지 대상자의 생활이 한층 어려워지고, 사회공동체가 수행하던 각종 생활문제 해결 및 예방 기능을 자원봉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원봉사자들이 비공식적 원조망을 구성하고 사회적 통합과 안녕을 유지하여 자원봉사 수혜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 자원봉사자에 나타나는 결과

(1) 정신적 성숙과 사회참여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도덕적·사회적 성장 경험의 기회를 갖는다(현외성, 2017).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본인의 삶의 방향 설정, 전공 교과목에 대한 현장 경험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1990년대부터 수차례 나타났다(김육진, 2015). 이수연·김형모(201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자원봉사는 건강한 인간발달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시민사회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제공한다(김육진, 2015). 봉사활동을 통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람과 교류할 수 있으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만들 수 있다. 즉, 개인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가져야 할 태도,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김육진, 2015).

(2)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

자원봉사활동은 사회공헌적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남은영 외, 2012). 자원봉사활동은 보람 있는 여가선용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활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아성장과 연관된 자원봉사 훈련 및 경험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일을 수행하여 사회에 이익을 주며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현외성, 2017).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경험을 누릴 수도 있다.

(3) 건강

자원봉사 참여가 증가하는 경우 육체적 건강 측면에서 사망률을 낮춘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Harris and Thoresen, 2005.; Okun et al, 2013). 하지만 Tang(2009)의 연구 등 만성질환(고혈압 등) 이환율을 감소하도록 만드는데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김육진, 2015).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봉사 참여가 육체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육진, 2015).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Lum and Lightfoot, 2005)와 정신건강 증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Borgonovi, 2008)가 상충되고 있다(김육진, 2015). 다수의 연구 결과는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자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김육진, 2015). 자원봉사를 통해 타인들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느끼는 행복감, 남들에게 비취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넓은 사회적 연결망 형성 및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 등이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의 주요 논거이다(김육진, 2015).

제 3 절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의 자원봉사 연구는 크게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원봉사의 참여 결과로 구분할 수 있다(남은영 외, 201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연령, 성별, 혼인여부, 학력, 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원봉사 결과에 대한 연구는 자원봉사가 개인 참여자들에게 주는 혜택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수혜자뿐만 아니라 참여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것이며 삶의 만족도 향상, 심리적 행복 증진 등이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하는 혜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남은영 외, 2012).

자원봉사 참여의향·경험에 따라 개인의 행복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가 행복수준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계량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원봉사 참여분야(환경보전, 취약계층 지원, 자녀교육, 문화예술) 및 행복 하위 분야(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별로 자원봉사와 행복 간에 인과관계를 재조명 해보고자 한다. 자원봉사 참여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 자원봉사 참여가 참여자의 행복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행복 증진 효과는 자원봉사 참여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 참여 및 참여의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층은 일정 시간의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점, 직장에서의 단체봉사활동 등 봉사활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자원봉사 참여 경험 및 참여 의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환경에서 정책도구로서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경우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분야를 환경보전 분야, 자녀교육 분야, 취약계층지원 분야, 문화예술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민의 행복을 측정함에 있어서 종합행복지수라는 지표 외에도 행복수준을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자원봉사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행복수준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기존에 연구된 적 없는 자원봉사 참여 분야 별로 개인의 행복수준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연구라는 점이다. 둘째, 분석과정에서 연령대(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별로 구분하여 자원봉사 참여와 행복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를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자원봉사 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한정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볼 때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방법

제 1 절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1. 연구가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와 개인의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의 가설 1을 설정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별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른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가설 2를, 연령대별로 자원봉사 참여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자원봉사 참여는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자원봉사 참여 분야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가설 3 : 연령대별로 자원봉사 참여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 수준 및 참여의향이 개인의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설 검증을 위한 독립변수는 자원봉사 참여 수준,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으로, 종속변수는 종합행복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과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자원봉사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이, 성별, 혼인여부, 학력 등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내용의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및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으며, 최소자승추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하였다.

$$\text{종합행복지수} = \alpha + \beta_1(\text{자원봉사참여}) + \beta_2(\text{자원봉사참여의향}) + \beta_3(\text{인구통계학적 특성}) + \epsilon$$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서울특별시민의 자원봉사 참여경험 및 향후 참여의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응답자 및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자원봉사 참여경험 및 향후 참여의향이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 절 분석자료와 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근거한다. 서울시민의 행복수준이 자원봉사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 및 주요변수들의 정의와 측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과 분석자료

서울특별시는 세계적 사회변화의 흐름을 수용하고 각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시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의 형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매년 20,000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6a: 4). 격년주기 순환조사 실시에 따라 2015년 조사에서는 여성가족, 복지, 재난/안전, 정보참여, 가치의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매년 조사결과와 기본자료(설문조사 결과 코딩값)를 공개하고 있다.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모집단이 2015년 10월 1일 기준 서울시 거주 가구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전체 세대수 4,068,308세대, 15세 이상 가구원 8,744,128명으로 파악).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20,000가구(15세 이상 46,837명)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였다(부재 시 배포조사 병행). 표본추출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과 과세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모집단(동별, 주택유형별 세대수)을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서울특별시, 2016a: 9). 표본설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층은 구(區, 25개), 제2층은 동(423개), 제3층은 주택유형(4개)로 구분하였다(서울특별시, 2016c: 8). 제1층 관련 구별 통계의 생산 및 비

교가 가능하도록 구별로 최소 400표본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구별 표본크기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제곱근 비례배분에 의해 구별 세대수를 배분하였다. 제2·3층인 동별·주택유형별 표본배분은 구내 동별 세대수 및 동 내 주택유형별 표본배분은 단순 비례배분법을 사용하였다. 가구원 데이터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pm 0.46\%p$ 이다(서울특별시, 2016b: 46).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의 측정: 자원봉사 참여정도 및 자원봉사 참여의향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원봉사 참여정도는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12번 문항(가구원용)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참여횟수 및 1회당 평균 활동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연간 참여횟수 및 1회당 평균 활동시간은 척도 없이 측정하였고 ‘0회’는 1, ‘1-2회’는 2, ‘3-4회’ 3, ‘5-9회’ 4, ‘10회 이상’ 5 로 코딩하였다.

해당 문항에서는 자원봉사분야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환경보전, 자녀교육,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분야로 구분하여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환경보전 관련 자원봉사활동은 마을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산에서 쓰레기 줍기 등을 의미한다. 자녀교육 관련 자원봉사활동은 일일교사,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을 의미한다. 취약계층 지원 자원봉사활동은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야학교사 활동 등을 의미한다. 문화예술분야 자원봉사활동은 문화교육, 안내, 재능기부 등을 의미한다.

자원봉사 참여의향은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13번 문항(가구원용) “귀하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까?” 라는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반드시 참여하고자하면 4점, 참여의향 있음 3점, 참여의향 없음 2점, 절대 비참여 1점으로 측정하였다.

2) 종속변수의 측정: 종합행복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종합행복지수이다. 종합행복지수는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7번 문항(가구원용)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의 행복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불행한 상태는 0점, 가장 행복한 상태는 10점입니다.” 라는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는 행복을 건강상태, 가정생활, 대인관계, 사회생활, 재정상태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를 모두 고려할 때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행복지수로 측정하였다. 분야별 행복지수는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4번 문항(가구원용)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라는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의 측정: 인구통계학적 요인 측정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과거 연구들이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자원봉사 참여의향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나이, 성별, 혼인여부, 학력으로 구분하였다.

나이는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세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기준(=0)으로 하여 더미변수(dummy)로 측정하였다. 혼인여부는 미혼을 기준(=0)으로 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는 혼인상태를 기혼, 미혼, 이혼/별거, 사별, 동거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나, 미혼·동거 항목 응답자를 미

혼으로 구분하였고 기혼, 이혼/별거, 사별은 기혼으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DQ1번 문항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문항을 활용하였다. ①초등학교 졸업(무학·중퇴 포함) 이하, ②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이하, ③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이하, ④전문대 졸업(재학, 중퇴 포함) 이하, ⑤대학교 졸업(재학, 중퇴 포함), ⑥대학원 수료/졸업(재학, 중퇴 포함) 으로 측정하였다.

<표 2> 설문에 사용된 문항

변수	사용된 문항	측정
독립 변수	<p>자원봉사 참여경험</p> <p>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1년간 다음 각 분야별로 참여횟수 및 1회당 평균 활동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환경보전 분야 ②자녀교육 분야 ③취약계층 지원 분야 ④문화예술 분야</p>	<p>연간 참여횟수, 1회당 평균 활동시간 척도 없이 측정</p>
	<p>자원봉사 참여의향</p> <p>귀하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절대 비참여 ②참여의향 없음 ③참여의향 있음 ④반드시 참여</p>	<p>반드시 참여(4) ~ 절대 비참여(1)</p>

종속 변수	종합 행복 지수	<p>“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p> <p>①자신의 건강상태 ②자신의 재정상태 ③주위친지, 친구와의 관계 ④가정생활 ⑤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p>	가장 행복한 상태 (10) ~ 가장 불행한 상태(0)
통제 변수	나이	응답자의 나이	①10대 ... ⑥60대 이상
	성별	응답자의 성별	여성(=1), 남성(=0)
	혼인여부	귀하의 혼인상태는?	기혼(=1), 미혼(=0)
	학력	응답자의 최종 학력	①초졸이하 ... ⑥대학원 이상

제 4 장 분석결과 및 해석

제 1 절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1.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범주	빈도	비율(%)	변수	범주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2,666	48.4	학력	초졸이하	1,091	2.3
	여성	24,171	51.6		중졸이하	4,764	10.1
연령	10대	3,588	7.7		고졸이하	17,229	36.8
	20대	6,453	13.8		대졸이하	23,213	49.6
	30대	9,789	20.9	대학원이상	540	1.2	
	40대	10,058	21.5	봉사경험	있다	40,775	87.1
	50대	8,841	18.9		없다	6,062	12.9
	60대 이상	8,108	17.2	결혼여부	기혼	34,989	74.8
			미혼		11,848	25.2	

빈도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48.4%, 여성이 51.6%로 나타났다. 매년 발표되는 서울서베이는 서울시 인구구성 비율을 반영하여 응답자 비율을 남성 48~49%, 여성 51~52% 사이에서 유지하고 있다. 연령은 40대가 21.5%로 가장 많고 30대 20.9%, 50대 18.9%, 60대 이상 17.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졸이하 49.6%, 고졸이하 36.8%, 중졸이하 10.1%, 초졸이

하 2.3%, 대학원 이상 1.2% 순이었다.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87.1%로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하여 약 75%p 높았다. 혼인 여부는 기혼자가 74.8%로 미혼자에 비해 3배 가량 많았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 수		관측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종합행복지수	46,837	6.96	1.056	0	10
독립변수	자원봉사 참여횟수	46,837	0.4558	2.125	1	5
	자원봉사 참여의향	46,837	2.38	0.677	1	4
통제변수	나 이	46,837	43.36	15.849	15	94
	학 력	46,837	3.69	1.112	1	6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종속변수인 종합행복지수는 평균 6.96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표준편차는 1.056이었다. 독립변수인 자원봉사 참여횟수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할 때 연 평균 0.45회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가 2.125로 나타났다.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은 평균 2.38로 참여의향 없음(2점)과 참여의향 있음(3점) 정도로 평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나이는 평균 43.36세이며 15세 이상부터 응답자가 있고 최고령 응답자는 94세이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을 1점, 대학원 수료 또는 졸업을 6점으로 할 때 3.69로 고등학교 졸업(3점)과 대학교 졸업(4점) 사이로 나타났다.

<표 5> 독립·종속변수의 하위 분야별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평균 (MEAN)	표준오차 (SE)	표준편차 (SD)	변이계수 (CV, %)	
행복 지수	건강상태	46,837	7.18	0.00676	1.4628	20.4
	재정상태		6.28	0.00686	1.4852	23.6
	대인관계		7.09	0.00580	1.2543	17.7
	가정생활		7.16	0.00588	1.2725	17.8
	사회생활		7.03	0.00595	1.2882	18.3
자원 봉사 참여	환경보전 참여횟수	2,539	2.85	0.07321	3.6892	129.3
	환경보전 참여시간		3.00	0.04081	2.0564	68.5
	자녀교육 참여횟수	1,416	3.13	0.08602	3.2371	103.3
	자녀교육 참여시간		2.66	0.05857	2.2043	82.6
	취약계층 참여횟수	2,098	3.55	0.10275	4.7064	132.3
	취약계층 참여시간		3.14	0.06599	3.0225	96.2
	문화예술 참여횟수	667	3.00	0.16157	4.1721	138.7
	문화예술 참여시간		3.09	0.10609	2.7394	88.5

※ 2016년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p.272의 표를 재구성

독립변수인 행복과 종속변수인 자원봉사 참여의 세부 분야별 기술통계량은 <표 5>와 같다. 행복의 경우 건강상태에 대한 행복지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재정상태에 대한 행복지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재정상태는 표준편차는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건강상태, 가정생활, 대인관계(친지, 친구 등), 사회생활, 재정상태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자원봉사 참여의 경우 관측치는 해당 분야에 참여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따라 다르다. 환경보전, 취약계층 관련 자원봉

사 참여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고, 참여횟수 평균은 취약계층지원 분야가 3.55회로 가장 많았다. 활동시간은 취약계층지원 분야가 3.14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분야 3.09시간, 환경보전 분야 3.00시간, 자녀교육 분야 2.66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응답자 유형별 측정결과

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종합행복지수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특성에 따른 행복도는 <표 6>과 같다.

<표 6> 응답자 유형별 종합행복지수

(단위: %, 점)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0.0	0.1	0.2	0.7	3.9	11.2	18.8	24.7	19.5	12.4	8.7	7.13	
성별	남성	0.0	0.0	0.2	0.7	4.0	11.5	19.0	24.9	19.0	12.0	8.8	7.11
	여성	0.0	0.1	0.2	0.6	3.8	11.0	18.6	24.5	19.9	12.7	8.6	7.15
연령별	10대	0.0	0.1	0.1	0.3	3.3	9.8	16.8	26.4	18.6	14.8	9.7	7.29
	20대	0.0	0.1	0.2	0.6	4.2	9.2	17.3	24.7	21.4	13.6	8.8	7.23
	30대	0.0	0.0	0.1	0.4	3.3	9.0	19.2	26.4	21.3	11.9	8.5	7.21
	40대	0.0	0.1	0.2	0.5	3.7	11.6	18.3	24.3	20.3	11.9	9.1	7.15
	50대	0.0	0.1	0.2	0.6	3.3	10.6	18.8	25.6	19.1	12.9	8.7	7.17
	60대 이상	0.0	0.1	0.2	1.3	5.1	15.4	20.4	22.1	16.2	11.2	8.3	6.90
학력별	중졸 이하	0.0	0.0	0.3	1.4	6.0	16.8	21.0	23.2	15.3	9.7	6.3	6.74
	고졸	0.0	0.1	0.2	0.6	4.2	11.9	18.8	22.7	17.7	14.5	9.3	7.15
	대졸	0.0	0.1	0.1	0.6	3.2	9.3	18.3	26.5	21.8	11.4	8.9	7.22
	대학원 이상	0.1	0.1	0.1	0.4	1.6	11.7	14.7	28.4	24.0	13.9	4.9	7.20

※ 2016년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p.111의 표를 재구성

종합행복지수는 0을 가장 불행한 상태, 10을 가장 행복한 상태로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평균은 7.13점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보통(5점)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해 볼 때 남성은 7.11점, 여성은 7.15점으로 여성의 종합행복지수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분포에서는 남녀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3~7점을 응답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10~30대는 7.2점 이상이고 40~50대는 7.1점대, 60대 이상은 6.9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종합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0대의 종합행복지수가 7.23점으로 가장 높고, 40대 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종합행복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50대에서는 40대보다 종합행복지수가 0.02점 증가하지만 60대 이상의 경우 6.90점으로 7점대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 6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종합행복지수를 3~6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자의 종합행복지수가 7.22점으로 가장 높고 중졸이하는 6.74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학원 졸업 이상의 집단에서는 종합행복지수를 10점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하여 낮지만, 7~8점대에 비교집단에 비하여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졸이하 응답자의 경우 응답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 볼 때 종합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집단이었으며, 다른 집단에 비하여 종합행복지수 3~6점 사이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경험

조사에서 측정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경험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응답자 유형별 자원봉사 참여경험

(단위: %, 회)

구 분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경험	비경험	환경보전	자녀교육	취약계층	문화예술
전 체		12.3	87.7	2.85	3.13	3.56	3.01
성별	남성	10.6	89.4	2.88	2.93	3.41	2.79
	여성	14.0	86.0	2.83	3.20	3.68	3.21
연령별	10대	33.0	67.0	2.52	2.09	2.45	2.07
	20대	12.8	87.2	3.06	3.17	3.31	2.79
	30대	11.1	88.9	2.62	3.04	3.49	3.02
	40대	12.7	87.3	3.30	3.09	4.23	3.81
	50대	10.4	89.6	2.80	2.95	4.17	3.14
	60대 이상	8.0	92.0	3.06	3.89	4.03	3.98
학력별	중졸 이하	18.8	81.2	2.60	2.36	2.51	2.10
	고졸	11.3	88.7	3.01	3.11	3.64	2.72
	대졸	11.3	88.7	2.94	3.16	3.93	3.35
	대학원 이상	16.1	83.9	2.88	2.811	5.12	3.64

※ 2016년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p.158의 표를 재구성

응답자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 참여경험자는 12.3%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 87.7% 보다 월등히 낮았다. 참여 횟수는 취약계층 지원 관련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많았고, 환경보전 관련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낮았다. 이는 연령대·성·학력 등으로 구별하여 살펴보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참여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위의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자원봉사

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 분야별로 구분해 볼 때 다른 분야와 달리 환경보전 관련 분야에서는 남성의 참여횟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가장 높다. 10대의 경우 33%가 참여했다고 응답했으나 60대 이상은 8.0%만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대는 취약계층 지원분야(2.45회) 보다 환경보전 관련 분야(2.52회)에 참여횟수가 더 높은 것도 특징이다. 1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하는 경우 20~50대의 경우 10% 이상, 13% 이하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의 참여비율이 높고 고졸·대졸의 자원봉사 참여 응답률이 낮았다. 특히 중졸 이하의 경우 다른 집단과 달리 취약계층 지원분야 보다 환경보전 관련 분야에 더 많은 참여횟수가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대학원 이상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취약계층 지원 관련 참여횟수가 5.12회로 월등히 높았다. 중졸 이하 집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높고 고졸·대졸 집단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낮은 결과는 학력과 자원봉사가 정(+)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자원봉사 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1. 상관관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종합행복지수와 독립변수인 자원봉사 참여횟수,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성별	나이	혼인 상태	학력	환경 보전	자녀 교육	취약 계층	문화 예술	*횟수 총합	향후 참여 의향	종합 행복 지수
성 별	1										
나 이	-.031***	1									
혼인상태	.097***	-.106***	1								
학 력	-.098***	-.055***	-.164***	1							
환경보전	.012***	-.093***	.043***	-.114***	1						
자녀교육	.082***	-.008	-.047***	.067***	.026***	1					
취약계층	.029***	-.051***	.022***	-.022***	.159***	.023***	1				
문화예술	.008	-.049***	.021***	.029***	.077***	.015***	.091***	1			
횟수총합	.041***	-.053***	.010*	-.010*	.487***	.346***	.571***	.315***	1		
참여의향	.024***	-.090***	-.012***	.080***	.167***	.125***	.202***	.104***	.203***	1	
종합행복 지수	-.032***	-.200***	-.001	.051***	.016***	-.006	.005	.010*	.006	.012***	1

* p<.05, ** p<.01, *** p<.001

상관관계분석 결과 종합행복지수와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과의 상관계수가 r=.012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종합행복지

수와 자원봉사 참여 횟수의 경우에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자원봉사 참여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전분야의 경우 상관관계수 값이 $r=.016(p<.001)$ 로 유의미 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의 경우에 상관관계수 값이 $r=.010(p<.05)$ 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환경보전 분야와 문화예술분야의 자원봉사 횟수가 높으면, 종합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교육 분야의 경우 $r=-.006$, 취약계층 분야의 경우 $r=.005$ 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본 결과 모든 설명 요소의 분산팽창지수 값이 10 이하로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할 때 1.021(문화예술 자원봉사 참여횟수) - 1.100(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 사이, 청소년층(10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1.001(혼인여부) - 연령대 5.245(연령대) 사이, 청년층(20-39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1.021(문화예술 자원봉사 참여횟수) - 1.543(나이) 사이, 중·장년층(40-64세)의 경우 1.017(문화예술 자원봉사 참여횟수) - 1.101(학력) 사이, 노년층(65세 이상)의 경우 1.017(자녀교육 자원봉사 참여횟수) - 1.198(혼인여부) 사이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이보다 낮아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회귀분석 분석결과

본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정도 및 향후 참여의향이 시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전 연령대 대상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이 서울시민의 종합행복지수를 설명하는 R^2 는 4.5% 였으

며,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행복지수(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할 때 R^2 는 8% 였으며, 행복지수(재정상태)를 종속변수로 할 때 R^2 는 0.7%였다. 독립변수인 자원봉사 참여정도 및 자원봉사 참여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1이 기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의 경우 대부분의 변수들이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나이, 성별, 혼인여부는 종합행복지수, 행복지수(건강상태), 행복지수(재정상태)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의 경우 해당 종속변수에서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변미리 외(2016)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교육수준이 행복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9> 다중회귀분석 결과A(종합행복지수·건강상태·재정상태)

종속변수	종합행복지수			부분별 행복지수						
				건강상태			재정상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상수)	7.554		.000	8.262		.000	6.545		.000	
통제변수	나이	-.143	-.206	.000	-.266	-.278	.000	-.067	-.069	.000
	성별	-.065	-.031	.000	-.137	-.047	.000	-.033	-.011	.016
	혼인여부	-.034	-.024	.000	-.036	-.018	.000	-.065	-.033	.000
	학력	.041	.044	.000	.058	.045	.000	.051	.038	.000
독립변수	환경보전 참여횟수	.010	.004	.449	.011	.003	.527	.007	.002	.723
	자녀교육 참여횟수	-.024	-.007	.125	.015	.003	.527	-.029	-.006	.193
	취약계층 참여횟수	-.007	-.003	.557	-.016	-.004	.338	-.027	-.007	.128
	문화예술 참여횟수	.001	.000	.974	.017	.002	.583	.027	.004	.406

	자원봉사 참여의향	-.011	-.007	.139	-.013	-.006	.200	-.006	-.003	.580
	관측치	46,837			46,837			46,837		
	R^2	.045			.080			.007		
	수정된 R^2	.044			.080			.007		
	F값	242.639 (.000)			452.992 (.000)			38.009 (.000)		

동일한 모형에서 행복지수(대인관계), 행복지수(가정생활), 행복지수(사회생활)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행복지수(대인관계)를 종속변수로 할 때 R^2 는 2.5% 였으며, 행복지수(가정생활)과 행복지수(사회생활)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R^2 는 2.4%로 나타났다.

이 때 독립변수인 자원봉사 참여는 분야에 따라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자녀교육 분야 자원봉사 참여의 경우 행복지수(대인관계), 행복지수(가정생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교육 분야 자원봉사 참여횟수가 증가할수록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은 가정생활($\beta=-0.010$)보다 대인관계($\beta=-0.011$) 분야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행복지수(사회생활)을 종속변수로 할 때 환경보전 분야 자원봉사 참여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 때 $\beta=0.010$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다중회귀분석 결과B(대인관계·가정생활·사회생활)

종속변수	부분별 행복지수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상수)	7.673		.000	7.730		.000	7.558		.000	
통계변수	나이	-.128	-.155	.000	-.127	-.152	.000	-.129	-.152	.000
	성별	-.058	-.023	.000	-.043	-.017	.000	-.057	-.022	.000
	혼인여부	-.019	-.011	.017	-.026	-.015	.001	-.022	-.012	.008
	학력	.029	.026	.000	.037	.032	.000	.032	.028	.000

독립변수	환경보전 참여횟수	.008	.002	.614	-.008	-.003	.594	.032	.010	.044
	자녀교육 참여횟수	-.044	-.011	.016	-.039	-.010	.036	-.021	-.005	.269
	취약계층 참여횟수	.005	.002	.728	.001	.000	.969	.001	.000	.955
	문화예술 참여횟수	-.014	-.002	.617	-.013	-.002	.639	-.014	-.002	.624
	자원봉사 참여의향	-.010	-.005	.281	-.017	-.009	.060	-.010	-.005	.284
관측치	46,837			46,837			46,837			
R^2	.025			.024			.024			
수정된 R^2	.025			.024			.024			
F값	132.770 (.000)			128.423 (.000)			129.355 (.000)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 참여분야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녀교육 분야 자원봉사활동은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 최근 우리나라 초등교육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야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양육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지도, 급식보조는 자녀양육의 부담 중 하나로 작용하여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참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영향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환경보전 분야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마을 청소, 한강 쓰레기 건져내기 등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활동 분야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에 기여했다는 개인에 대한 만족감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 연령대별 구분 분석결과

연령대를 구분하여 종속변수를 다양화(종합행복지수 및 분야별 행복지수) 하여 측정해 보는 방법이 있다. 연령대는 청소년층(10대), 청년층(20-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청소년층(10대)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에 따를 때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모형의 분석결과 F값과 무관히 유의확률이 모두 0.05를 넘어서 변수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표 11> 다중회귀분석 결과(청소년층: 10대)

종속 변수	종합행복지수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상수)	6.895		.000	6.456		.000	4.000		.000	8.313		.000	7.868		.000	7.782		.000	
통제 변수	나이	-.015	-.006	.761	.029	.007	.713	-.143	-.033	.087	-.016	-.005	.803	.084	.025	.194	-.031	-.009	.641
	성별	.002	.001	.936	-.006	-.033	.033	.093	.030	.052	-.011	-.005	.767	.046	.019	.216	-.020	-.008	.602
	혼인 여부	.319	.017	.284	.749	.025	.104	1.295	.041	.008	-.204	-.008	.589	-.078	-.003	.835	-.168	-.007	.663
	학력	-.028	-.018	.344	-.051	-.021	.268	.008	.003	.875	-.013	-.006	.736	-.053	-.027	.154	-.030	-.015	.425
독립 변수	환경보전 참여 횟수	.014	.009	.556	.003	.001	.937	.009	.004	.805	.004	.002	.887	.017	.009	.563	.035	.018	.246
	자녀 교육 참여 횟수	-.126	-.010	.511	.060	.003	.839	-.211	-.010	.504	-.321	-.020	.189	-.314	-.020	.198	.153	.018	.538
	취약 계층 참여 횟수	.001	.000	.978	-.029	-.011	.501	-.043	-.015	.344	.028	.013	.414	.058	.027	.097	-.011	-.005	.751
	문화 예술 참여 횟수	-.140	-.041	.009	-.137	-.026	.096	-.043	-.024	.134	-.149	-.035	.027	-.083	-.019	.218	-.199	-.046	.004
	자원 봉사 참여 의향	.006	.004	.784	.027	.013	.268	.028	.012	.437	-.012	-.007	.664	-.017	-.010	.536	.004	.002	.884

관측치	3,588	3,588	3,588	3,588	3,588	3,588
R^2	.003	.003	.005	.002	.002	.003
수정된 R^2	.000	.001	.002	.000	.000	.001
F값	1.231 (.270)	1.361 (.200)	2.150* (.023)	.906 (.519)	1.089 (.367)	1.410 (.177)

(2) 청년층(20-39세) 다중회귀분석 결과

청년층은 20-39세 사이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에 따를 때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모형의 분석결과 F값은 7.891 ~ 22.957 사이의 값을 가졌으며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R^2 는 0.5% ~ 1.3%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자원봉사 참여 정도 및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종합행복지수 및 분야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표 12>와 같다.

청년층의 경우 종합행복지수를 종속변수로 할 때 자녀교육분야 자원봉사 참여 및 문화예술분야 자원봉사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 분야의 $\beta=-0.023$ 으로 $p<.05$ 수준에서 종합행복지수와 부(-)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beta=0.016$ 으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할 경우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참여가 $\beta=0.017$ 으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행복지수(재정상태)의 경우 자녀교육분야 자원봉사 참여가 $\beta=-0.020$,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행복지수(대인관계)의 경우 자녀교육분야 자원봉사 참여가 $\beta=-0.021$,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행복지수(가정생활)의 경우 자녀교육분야 자원봉사 참여($\beta=-0.027$, $p<.05$)와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beta=-0.02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행복지수(사회생활)의 경우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인과관계가 있

다는 결과(-0.019, $p < .05$)가 나왔다.

통제변수의 경우 나이가 종합행복지수 및 분야별 행복지수에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재정상태)와 나이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다른 분야의 경우 나이는 모두 행복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행복지수(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행복지수(재정상태)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혼인여부의 경우 행복지수(사회생활)분야에서 $\beta = 0.020$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청년층의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서도 자원봉사 참여분야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경쟁주의적 입시문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양육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교육 분야 자원봉사(교통지도, 급식보조 등)는 자녀양육의 부담 중 하나로 작용하여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시의 2015년 평균 초혼 연령(남성 32.8세, 여성 30.7세)을 기준으로 남성 33-39세, 여성 31-39세에 한정하여 분석해 볼 경우 남성은 자녀교육 분야 자원봉사 참여가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성은 행복지수(재정상태)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beta = -0.040$ 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특히 청년층 전반의 표준화계수보다 31-39세 여성의 표준화계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각 종 의무적 봉사활동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에 따르면 20대도 자녀교육 분야 자원봉사 활동에 연 3회 이상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는 다르나 김혜숙(2002)의 연구에서는 1995년 도입된 청소년 사회봉사활동은 비자발성과 의무화로 인해 시간 채우기 식의 의무시간 정도의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봉사 이후에도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민진, 2017). 자녀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연령층의 비자발적 봉사활동 참여가 행복과 부(-)의 상관관계로 연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최

근 취업·학점 취득 등을 위한 비자발적 봉사활동이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청년층은 취업 과정에서 제출 서류에 각종 경험 증빙 및 자기소개 관련 활용을 위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학사학위 취득 조건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요구하는 대학교도 있다. 이러한 비자발적 자녀교육관련 자원봉사 활동에서 만족감·성취감을 얻지 못함에 따라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의 경우 문화교육, 재능기부 등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자원봉사는 현외성(2017)의 연구에서처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아성장과 연관된 자원봉사 훈련 및 경험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Maslow의 욕구계층론 관점에서 살펴볼 때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행복지수(가정생활) 및 행복지수(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이 정신건강 증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Borgonovi, 2008)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행복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는 청년층의 ‘자원봉사 참여 가능 시간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방해요인으로 우선순위로 꼽히는 것은 ‘참여 가능한 시간의 부족’이다(김욱진, 2015). 청년층은 구직활동·직장생활로 다수의 시간을 보낼 시기이며, 소위 ‘스펙 쌓기’을 위한 노력 및 ‘OECD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에의 참여하고 싶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자아실현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있다.

<표 12> 다중회귀분석 결과(청년층: 20-39세)

종속 변수	종합행복지수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비표 준화 계수	표준 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 준화 계수	표준 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 준화 계수	표준 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 준화 계수	표준 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 준화 계수	표준 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 준화 계수	표준 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상수)	7.435		.000	8.346		.000	5.624		.000	8.401		.000	7.779		.000	7.604		.000	
통 제 변 수	나이	-.115	-.058	.000	-.298	-.107	.000	.220	.075	.000	-.184	-.076	.000	-.131	-.053	.000	-.184	-.073	.000
	성별	-.010	-.005	.533	-.073	-.027	.001	.064	.022	.005	-.027	-.011	.150	.014	.006	.481	-.026	-.011	.181
	혼인 여부	.018	.009	.319	-.001	.000	.979	.033	.012	.198	.018	.008	.389	-.010	-.005	.632	.047	.020	.033
	학력	.016	.015	.061	.019	.013	.107	.015	.009	.245	.009	.006	.411	.019	.014	.080	.019	.014	.076
독 립 변 수	환경 보전 참여 횟수	-.036	-.012	.137	-.056	-.013	.099	-.015	-.003	.666	-.038	-.010	.198	-.057	-.015	.058	-.015	-.004	.635
	자녀 교육 참여 횟수	-.057	-.023	.004	-.023	-.006	.472	-.087	-.020	.011	-.076	-.021	.007	-.098	-.027	.001	-.051	-.014	.082
	취약 계층 참여 횟수	-.003	-.001	.879	-.001	.000	.976	-.050	-.013	.098	-.002	-.001	.924	.017	.005	.517	.021	.006	.419
	문화 예술 참여 횟수	.065	.016	.048	.101	.017	.027	.087	.014	.071	.031	.006	.442	.036	.007	.370	.070	.013	.092
	자원 봉사 참여 의향	-.014	-.009	.245	-.003	-.002	.832	.017	.008	.339	-.012	-.007	.386	-.035	-.020	.016	-.034	-.019	.022
관측치	16,242			16,242			16,242			16,242			16,242			16,242			
R^2	.005			.013			.006			.007			.004			.009			
수정된 R^2	.005			.012			.005			.007			.004			.008			
F값	9.904 (.000)			22.957 (.000)			10.495 (.000)			13.590 (.000)			7.891 (.000)			15.545 (.000)			

(3) 중·장년층(40-64세) 다중회귀분석 결과

중·장년층은 40-64세 사이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에 따를 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모형의 분석결과 F값은 32.522 ~ 102.554 사이의 값을 가졌으며 유의확률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R^2 는 2.9% ~ 4.0%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자원봉사 참여정도 및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종합행복지수 및 분야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표 13>과 같다.

중·장년층의 경우 환경보전분야 자원봉사 참여와 종합행복지수, 행복지수(건강상태), 행복지수(사회생활)을 종속변수로 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종합행복지수를 종속변수로 할 때 환경보전분야 자원봉사 참여횟수의 $\beta=0.015$ 으로 $p<.05$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행복지수(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할 때 환경보전분야 자원봉사 참여횟수의 $\beta=0.020$ 으로 $p<.05$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행복지수(사회생활)을 종속변수로 할 때 환경보전분야 자원봉사 참여횟수의 $\beta=0.018$ 으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환경보전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행복수준이 증가한 것이다.

통제변수의 경우 나이와 성별이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행복지수 뿐만 아니라 분야별 행복지수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층의 경우 환경보전 참여분야가 행복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의제에 참여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일조했다는 만족감,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때 느끼는 행복감, 사회적 평판의 상승을 통한 개인적 만족감 등이 환경보전분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자가 행복감을 제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13> 다중회귀분석 결과(중·장년층: 40-64세)

종속 변수	종합행복지수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 확률	
(상수)	8.182		.000	8.945		.000	7.633		.000	8.039		.000	8.231		.000	8.063		.000	
통제 변수	나이	-.244	-.163	.000	-.374	-.189	.000	-.240	-.115	.000	-.194	-.109	.000	-.202	-.113	.000	-.212	-.118	.000
	성별	-.111	-.052	.000	-.176	-.063	.000	-.139	-.047	.000	-.077	-.031	.000	-.084	-.033	.000	-.079	-.031	.000
	혼인 여부	.003	.002	.771	-.008	-.004	.586	.011	.005	.470	.012	.006	.368	.013	.007	.301	-.012	-.006	.341
	학력	.000	.000	.953	.001	.000	.947	-.012	-.008	.266	.008	.006	.380	.000	.000	.980	.001	.001	.931
독립 변수	환경보전 참여 횟수	.046	.015	.025	.078	.020	.004	.041	.010	.152	.038	.011	.120	.010	.003	.692	.063	.018	.011
	자녀 교육 참여 횟수	-.012	-.004	.559	.024	.006	.374	-.030	-.007	.296	-.029	-.008	.239	-.019	-.005	.453	-.007	-.002	.791
	취약 계층 참여 횟수	-.017	-.007	.339	-.022	-.006	.352	-.016	-.004	.531	-.005	-.002	.813	-.027	-.009	.218	-.017	-.001	.444
	문화 예술 참여 횟수	.005	.001	.886	.015	.002	.763	.056	.007	.290	-.009	-.001	.848	-.032	-.005	.481	-.003	-.001	.940
	자원 봉사 참여 의향	.002	.001	.866	-.001	.000	.948	.000	.000	.983	-.001	-.001	.930	.004	.002	.749	.008	.004	.573
관측치	22,007			22,007			22,007			22,007			22,007			22,007			
R ²	.029			.040			.015			.013			.014			.015			
수정된 R ²	.029			.040			.014			.013			.013			.015			
F값	73.477 (.000)			102.554 (.000)			36.919 (.000)			32.522 (.000)			34.268 (.000)			38.120 (.000)			

(4) 노년층(65세 이상) 다중회귀분석 결과

노년층은 65세 이상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에 따를 때 노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모형의 분석결과 F값은 3.173 ~ 10.305 사이의 값을 가졌으며 유의확률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R^2 는 0.6% ~ 1.8%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자원봉사 참여정도 및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종합행복지수 및 분야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표 14>와 같다.

노년층의 경우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과 종합행복지수, 행복지수(건강상태), 행복지수(재정상태)를 종속변수로 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종합행복지수를 종속변수로 할 때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의 $\beta=-0.042$ 로 $p<.05$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행복지수(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할 때 자원봉사 참여의향의 $\beta=-0.051$ 로 $p<.05$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행복지수(재정상태)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도 자원봉사 참여의향의 $\beta=-0.048$ 로 $p<.05$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을 갖고 있는 경우 행복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 참여의향의 경우 행복지수(대인관계)에 있어서도 $\beta=-0.051$ 로 $p<.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과 학력이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종합행복지수 뿐만 아니라 분야별 행복지수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의 경우 종합행복지수 이외에도 분야별 행복지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종합행복지수, 행복지수(건강상태) 및 행복지수(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거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본인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부정적 측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한준 외(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Fujirawa & Kawachi(2008), Borgonovi(2008) 등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참여가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히기도 하였다는 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하여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년층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 즉 자원봉사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크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로 이어지기 어려워지는 것이다(김옥진, 2015). 이러한 경우 재정상태의 행복과 역의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14> 다중회귀분석 결과(노년층: 65세 이상)

종속 변수	종합행복지수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상수)	6.611		.000	7.183		.000	5.797		.000	6.720		.000	6.624		.000	6.733		.000	
통제 변수	나이	.001	.005	.754	-.003	-.010	.492	.004	.012	.424	.001	.006	.710	.003	.010	.501	.001	.003	.855
	성별	-.185	-.077	.000	-.332	-.106	.000	-.094	-.031	.042	-.157	-.057	.000	-.201	-.072	.000	-.142	-.050	.001
	혼인 여부	-.003	-.003	.841	.011	.009	.545	-.009	-.008	.620	-.012	-.012	.446	.000	.000	.991	-.004	-.004	.807
	학력	.071	.069	.000	.092	.069	.000	.076	.057	.000	.050	.043	.005	.070	.059	.000	.067	.054	.000
독립 변수	환경보전 참여 횟수	.021	.005	.717	.086	.017	.251	-.030	-.006	.686	.028	.006	.666	-.008	-.002	.904	.028	.006	.687
	자녀 교육 참여 횟수	-.036	-.006	.691	-.095	-.011	.422	-.034	-.004	.771	-.063	-.009	.544	.083	.011	.435	-.071	-.009	.514
	취약계층 참여 횟수	.049	.012	.393	-.016	-.003	.833	.069	.014	.352	.068	.015	.299	.043	.009	.522	.081	.017	.239

	문화예술 참여 횟수	.031	.004	.762	.015	.002	.911	.057	.006	.667	.086	.010	.468	.048	.006	.691	-.050	-.006	.688
	자원봉사 참여 의향	-.072	-.042	.006	-.115	-.051	.001	-.107	-.048	.002	-.051	-.026	.091	-.045	-.022	.146	-.043	-.021	.176
관측치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R^2		.012			.018			.006			.007			.010			.006		
수정된 R^2		.010			.016			.004			.005			.008			.004		
F값		6.872 (.000)			10.305 (.000)			3.173 (.000)			3.680 (.000)			5.326 (.000)			3.502 (.000)		

(5) 자원봉사 참여분야별·연령대별 분석결과

위에서 살펴본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15>와 같다. 우선 환경보전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중·장년층의 행복수준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청년층의 행복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녀교육분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할수록 청년층의 행복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의 경우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낮아지는 관계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은 노년층의 행복수준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 참여는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일부 채택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5>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일부 연령대에서 자원봉사 참여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환경보전분야 자원봉사 활동과 문화예술분야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중·장년층 또는 청년층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자녀교육분야

자원봉사 참여 및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청년층과 노년층의 행복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 참여 분야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였다. 또한 “연령대별로 자원봉사 참여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 3을 입증했다.

<표 15> 분석결과 요약

자원봉사 참여분야	청소년층 (10대)	청년층 (20-39세)	중·장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
환경보전 참여횟수	.	.	0 (+)	.
자녀교육 참여횟수	.	0 (-)	.	.
취약계층 참여횟수
문화예술 참여횟수	.	0 (+)	.	.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	.	0 (-)	.	0 (-)

0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요소, (+) : 정의 상관관계, (-) : 부의 상관관계

부분별 행복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청소년층 및 청년층의 경우 <표 16>,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경우 <표 17>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층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층의 경우 자녀교육분야 자원봉사 참여는 종합행복지수 뿐만 아니라 부분별 행복지수(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와 부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 자원봉사 참여는 종합행복지수와 행복지수(건강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입증되었다.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의 경우 행복지수(가정생활, 사회생활)과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경보전분야 자원봉사 및 취약계층지원분야 자원봉사의 경우 종합행복지수 및 부분별 행복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6> 자원봉사참여가 부분별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청소년층, 청년층)

	청소년층 (10대)					청년층 (20-39세)				
	환경 보전	자녀 교육	취약 계층	문화 예술	참여 의향	환경 보전	자녀 교육	취약 계층	문화 예술	참여 의향
종합 행복지수	0 (-)	.	0 (+)	.
행복지수 (건강상태)	0 (+)	.
행복지수 (재정상태)	0 (-)	.	.	.
행복지수 (대인관계)	0 (-)	.	.	.
행복지수 (가정생활)	0 (-)	.	.	0 (-)
행복지수 (사회생활)	0 (-)

0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요소, (+) : 정의 상관관계, (-) : 부의 상관관계

중·장년층의 경우 환경보전 분야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종합행복지수 및 건강상태·사회생활 행복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종합행복지수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재정상태 행복 분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의 건강 및 재정 상태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Musick&Wilson(2008)의 연구 결과 건강상태는 대표적인 자원봉

사 참여 방해요인이며(김옥진, 2015),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자원봉사 참여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나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

<표 17> 자원봉사참여가 부분별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중·장년층, 노년층)

	중·장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 이상)				
	환경 보전	자녀 교육	취약 계층	문화 예술	참여 의향	환경 보전	자녀 교육	취약 계층	문화 예술	참여 의향
종합 행복지수	0 (+)	0 (-)
행복지수 (건강상태)	0 (+)	0 (-)
행복지수 (재정상태)	0 (-)
행복지수 (대인관계)
행복지수 (가정생활)
행복지수 (사회생활)	0 (+)

0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요소, (+) : 정의 상관관계, (-) : 부의 상관관계

제 5 장 연구의 함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 참여정도 및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서울특별시 시민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자원봉사 참여 및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여 자원봉사 참여분야, 연령대별로 자원봉사 참여에 따른 행복에의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 참여분야별로 개인의 행복수준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바 없는 자원봉사 참여분야별 실증결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다수의 연구결과와 달리 자원봉사 참여분야를 구분하여 분석해 볼 때 자원봉사 참여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연령대별로 자원봉사 참여 분야에 따라 행복에의 영향이 상이한 점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하위 행복지수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특별시민의 분야별 자원봉사 참여경험 및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 참여경험 및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참여 분야 및 연령대별로 자원봉사 참여에 따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연령대별로 봉사활동 분야에 따라 행복에의 영향 다르므로 연령대별로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제안하는 것 의미 있을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본질적 특징인 ‘자유의지’(free will)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이 아닌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실천할 때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육아의 차원에서 순번제로 실시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참여 자체로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영향이 크고 이러한 점에서 청년층의 자녀교육분야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경쟁주의적 입시환경을 고려하는 경우 학부모들이 참여를 통한 불합리한 교육여건 개선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도 있다(김옥진, 2015). 따라서 자원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봉사활동의 지속성, 시민들의 만족감 측면에서 의미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과 행복 수준이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Maslow의 욕구계층론 중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 경우, 자기완성에 대한 갈망으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재능이나 기술이 있을 때 이를 활용하고자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Vineyard, 1984).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있는 사람이 행복 수준이 낮다는 것은 자기 완성에 대한 갈망으로 자원봉사에

의 참여동기는 존재하나 자아실현 부족으로 현재의 행복수준은 낮게 측정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지역 수준에서 자원봉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분야를 발굴하여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자원봉사 분야별, 연령대별로 자원봉사 참여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 표준화 계수(β) 값이 크지 않아서 자원봉사 참여경험 또는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이 시민의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간적 범위가 서울지역에 한정되어 다른 도시나 농촌 등 정주여건이 다른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서울시민 46,837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서울 이외 지역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자원봉사 참여경험과 행복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15년 단년도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어 시간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하여 다수준 분석(multi-level)을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철희. (2003).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2): 161-205.
- 김기원. (1997). 자원봉사참여욕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0: 1-48.
- 김병섭 외. (2013). 「정책수단론」. 서울 : 법문사.
- 김병섭, 강혜진, 김현정. (2015). 지방정부서비스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주거영역 삶의 질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3(3): 29-56.
- 김봉근, 박종석. (2013). 개인의 자원봉사 결정에 대한 소득이질성의 영향 분석. 「노동경제논집」, 36(1): 45-62.
- 김성경. (2007).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자원봉사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자원봉사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단일호): 1-20.
- _____. (2009). 사회적 자본 요인 및 자원봉사활동 요인이 평균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317-337.
- 김성준. (2001). 지방자치와 자원봉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호: 161-178.
- 김욱진. (2015). 「자원봉사: 영향요인과 파급효과」. 서울 : 청목출판사.
- 김 인. (1997). 경찰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 자율방법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4)
- _____. (1999). 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 프로그램의 유형, 제도적 장치 및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3(1): 1-30.
- 김태홍·김난주·권태희. (2007).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인구학」, 30(3): 83-105.
- 남은영, 이재열, 김민혜. (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1-33.
- 박민진, 민보경, 정우성. (2017). 관계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민의 세대별 비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2): 1-30.
- 박태규, 박수범, 김은정. (2004). 자원봉사의 경제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5(1): 73-99.
- 변미리, 최정원. (2016). 서울 시민의 행복 메커니즘: 시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조사연구」, 17(2): 61-84.
- 송정안. (2016).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 차이와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 효과 분석 :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3): 299-323.
- 서울특별시. (2016a). <2016 서울서베이>
 _____ . (2016b). 2016 서울서베이 보도자료(2016. 6. 22)
 _____ . (2016c). 「2016년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서울연구원
- 신윤창. (2008). 자원봉사활동의 이론적 연구 : 한국과 외국의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정정책연구」, 6(1): 123-148.
- 오석홍. (2016). 「행정학」. 서울 : 박영사.
- 이란희. (2015).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5(3): 128-162.
- 이수연, 김형모. (2013).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비행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4: 189-211
- 이용관. (2015). 누가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 「보건사회연구」, 35(1): 275-298.
- 이종수, (2011). 「새 미래의 행정」. 서울 : 대영문화사.
- 이지은, 강민성, 이승중. (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 이진이, 김태완. (2015). 소득수준과 자원봉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15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91-293.
- 임승빈. (1999). 정부와 자원봉사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방안에 대

- 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정지범. (2011). 「국민행복 결정요인 분석 및 제도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조선주. (2006). 개인의 자원봉사 행위에 관한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5(1): 73-99.
- _____. (2011).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 추정. 「노동정책연구」, 11(3): 81-107.
- 최말옥, 문유석. (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1): 277-299.
- 한준, 김석호, 하상응, 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 한학진, 강혜숙. (2012). 여성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4(1): 181-200.
- 행정자치부. (2016). 「2016년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 현외성. (2017). 「현대 자원봉사론」. 서울 : 창지사.
- 홍연숙. (2000).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및 중단원인에 대한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2): 3-30.
- Choi, N. G. and DiNitto, D. M., (2012). Predictors of time volunteering, religious giving, and secular giving: Implicat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9, 93-120.
- Diener, E., Sandvik, E., & Pavot, W. (2009). Happiness is the frequency, not the intensity, of positive versus negative effect. 「Assessing well-being」. Springer Netherlands.
- European Union. (2009). Council Decision on the European Year of Voluntary Activities Promotion Active Citizenship.
- Freeman, R. B. (1997). Working for Nothing: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10), 140-166.
- Helliwell, J. F., R.D. Putnam.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Herzog, A., Kahn, L., Morgan, N., Jackson, S., Antonucci, C. (1989).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44, 129-138.
- Hodgkinson, V. A., Weitzman, M. S., Kirsch, A. D.(1988). 「From Belief to Commitment: the Activities and Finances of Religious Congregation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Independent Sector.
- Maslow, Abraham H. (1943).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Meneghetti, Milena M. (1995). 「Motivating People to Volunteer Their Service」. The Volunteer Management Handbook, edited by Tracy Daniel Connor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Musick, M. A. and J. Wilson. (2003). Volunteering and depression: the rol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in different age group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6, 259-269.
- Okun, Morris A., and Amy Schultz. (2003). Age and Motives for Volunteering: Testing Hypotheses Derived From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18(2): 231-239
- J. I. Brudney., Voluntarism, Schafritz, Jay M, ed. (1998).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2343-2349.
- Vineyard, Sue. (1984). 「Marketing Magic for Volunteer Programs」. Vineyard, Downers Grove: Heritage Arts.
- UNV. (2011). The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Abstract

The Effects of volunteering participation on Happiness : Focusing on the differential effects of volunteer participation field and age

Lee, HyeongGyu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since the end of the 1960's, sudden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ve exposed the limits of government capacity. The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has been difficult to meet all the needs of society, coupled with increased

economic hardship and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volunteer work has emerged as a cheap and effective means of providing services. Even if the volunteer activities do not achieve the efficiency as expected, the use of volunteer as a policy tool in the public sector is significant in terms of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It wa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 of critical qualities and the demand for active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maturity of citizen consciousness. Volunteering is meaningful as a representative form of civil-government partnership.

In this social context, the study of the rapidly increasing volunteer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One is theoretical research on volunteer motivation and analysis of volunteer participation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the other is empirical research on the results of volunteering. Factors influencing volunteer participation were socioeconomic status such as age, gender, marri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income. There are also studies related to the benefits to volunteer participants regarding the outcome of volunteering. Specifically, research has shown that improving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nd promoting psychological well-being are the benefits experienced by volunteer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 of volunteering on the promotion of happiness by using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age and education as control variab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effect of volunteer participation and volunteer intention on happiness. In the case of happiness,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we analyze the sub-components of happiness such as health status,

financial statu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amily life, and social life. In order to obtain various implications, these analyzes were conducted by age group. For this purpose, we tried to limit the scope to Seoul citizens and conduct a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2016 Seoul Survey Urban Policy Indicator Survey」 data. This is meaningful because it analyzes the effect of volunteer participation on the happiness, which is a blind spot of the existing researc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n happiness was different among the generations of volunteers. First,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sitively affects the happiness level of 40-64 year olds. Second, it was statistically confirmed that participating in volunteering in the arts and culture field positively affects the happiness level of 20-39 year olds. On the other hand,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in the field of children's education negatively affected the level of happiness of 20-39. Third, in the case of 20-39 year old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willingness to volunteer and the level of happiness in the future. It was confirmed that the willingness to volunteer in the futur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level of happiness of the elderly.

Through these analyzes, we confirmed that the factors that positively or negatively affects the level of individual happiness by volunteer participation field.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correlation with happiness according to volunteer activity areas that have not been done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unlike the results of many studies, it has been confirmed empirically that participating in volunteering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happiness when we divide and analyze volunteer participation areas. In addition to analyzing the effect of volunteer participation on the happiness according to age group, it is meaningful that it analyzed the influence on the sub happiness index.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can be made. First, according to the volunteer sector by age group varies influence on happiness would mean to suggest personalized volunteering by age group. Second, they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based on free will, which is an essential feature of volunteer activities.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is not based on outside pressure but on your own, and is likely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happiness when you choose to do it yourself. Third, it is necessary to take a policy response to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ntention to participate in volunteering and happiness level.

**keywords : happiness, volunteering participation, willing
volunteering participation**

Student Number : 2015-24498